

아시아·태평양지역 물류전문인력양성 필요

제6회 한·중·일 물류교류회 개최



동북아 물류발전을 위한 물류 관계자들의 모임인 한중일 물류교류회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천진시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제6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서병륜 한국물류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 20여명, 일본 30여명, 중국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육강회장은 “중국물류산업은 중국전체 서비스산업의 18.4%로, 물류업의 작년 성장률은 24%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중국은 물류산업을 계속 발전 유지하고, 물류산업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한국 일본으로부터 선진물류기업의 유치하는 한편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며, 인사를 대신했다.

일본을 대표하여 다이후크(주) 하야사키 신지 상무이사는 “세계물류산업에서 아시아의 물류산업은 아주 중요하고, 특히 중국시장은 매력있는 시장으로, 천진시는 중국북방에 중요한 항만 지역이다”고 설명하며 “물류시스템의 자유경쟁속에,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일 물류교류회가 계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물류협회 서병륜 회장은 “중국물류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중일이 모여 아시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 아시아의 물류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아시아 물류인재양성을 희망한다”며, “한중일 물류교류회 천진행사가 물류선진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설교통부 김종호 사무관이「대한민국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여, 한중일을 대표하여 총 14명이 물류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김종호 사무관은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물류비도 증가, 물류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의 경우 표준화 정책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표준화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물류표준화는 계획없이 추진되었지만, 물류표준화 대상을 수송, 보관, 포장, 운반하역, 정보화, 기반 등 6개로 구분하고, 2009년까지 기반조성을 12년까지 분야별계획의 본격화하여 12년 이후에는 IT기반의 물류표준화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중국 상무부 미대사 김욱 부사장이 「중국과 미국 무역의 상호 이익」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과 상호 28년의 수교아래 상호 무역 및 투자의 발전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수교시 상호 무역액 U\$25억불, 06년기준 U\$2,626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중미 상호간 무역, 투자, 금융 방면의 상호 교류는 아주 높은 수준이나, 무역 불균형에 따른 상호 마찰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는 중국정부가 계속 개선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중미간의 상호 노

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발표자인 용마로지스(주) 김동성팀장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PL전문기업」이라는 주제로 용마로지스 기업에 대한 회사소개를 하였으며, 로지스올 인터내셔널 박재문 이사는 「로지스올 인터내셔널 물류시스템 체제」를 소개하였다.

행사 마지막날 천진항과 보세구 국제물류유한공사를 각각 방문하여 중국기업의 물류발전을 살폈다.

천진항은 북경에서 17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북중국의 관문항으로 180여개국 400개 이상의 항만과 교역을 하고 있으며 내륙으로 고속도로와 철도가 완비되어 있어 북중국의 HUB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0km에 달하는 관세자유지역(Free Trade Zone)이 있다.

천진항은 80여개의 정기 컨테이너운송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약 400척의 정기 컨테이너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향후 2010까지 450億元(5조4천억)을 투자하여, 25만톤급 항로와 30만톤급 원유 선착장 건립할 예정이다.

보세구 국제물류유한공사는 중일합작(3개회사)의 중외합자유한공사의 물류자동화창고로 면적은 32,000평방미터, 창고면적은 15,000평방미터, 창고높이 24미터, 창고안 6,400평방미터의 자동화작업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물의 보관, 배송, 포장, 간단한 가공 업무통관, 보험, 검역, 검사, 도로운수, 철도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물류